

서로 사랑하면

노조미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스즈키 히로시(Hiroshi Suzuki)

2026년 5월 26일

1 만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성해(河成海) 목사님 가족을 만난 것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1993년 초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했고, 하 목사님 일행도 아직 일본어를 거의 못 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가볍게 말을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어느 정도 계시기는 했지만, 하 목사님은 한국인 교회가 아니라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중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이 계셨겠지만, 솔직히 당시로서는 한국인 목사님 아래에서 일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를 생각하기란 거의 어려웠던 때였습니다¹. 또한 두 자녀는 우리 집 다섯 아이와 나이대도 비슷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².

그러던 중, 사실 작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³. 이 무렵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원-달러 환율을 고정하고 있었는데⁴,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 인해 1990년 1달러당 160엔대였던 환율이 1995년에는 79엔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및 이와 연동되어 있던 원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만 것입니다. 1993년은 바로 이러한 변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로부터 충분한 후원금이 송금되고 있었을 터였지만, 가치가 대폭 폭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⁵ 전해 듣고, 아내 세츠코와 상의하여 '이 금액을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며 선교 헌금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액은 잊어버렸지만, 아무래도 신문지에 싸서 드렸던 모양입니다. 두고두고 하 목사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신문지 뭉치로 거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다만, 선교를 통해 섬기러 온 일본 땅에서 거꾸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목사님께는 가장 큰 놀라움이었던 것 같고, 한국 교회에도 이 사실을 여러 형태로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이미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셨지만, 고베 개혁파 신학교에서 다시 공부하셨고, 일본어 실력은 엄청난 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신학교의 낮은 수준이나 일본 그리스도인 및 목회자들과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논쟁하고 부딪히는 일도 늘어난 듯하여, 저와 몇 번 이고 오랜 시간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일본 기독교계의 과제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설명해 드리며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¹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²사실 저는 오사카 교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나, 그해 여름에는 미타카에 있는 국제기독교대학(ICU)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³한국의 IMF 경제 위기는 이보다 더 나중의 일인 듯합니다.

⁴일본도 1971년까지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⁵아마도 소속되어 있던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고시엔 교회의 야마자키 준지 목사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5년 1월 17일, 고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미 도쿄로 옮겨간 상태였지만, 고베에서 하 목사님 가족이 살고 계시던 니시노미야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하 목사님 덕도 한동안 단수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 목사님은 즉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이재민 구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건너뛰지만, 그 후 사야마로 이주하신 뒤 '하 선교사를 돕는 모임'이 결성되었는데, 이 고베·아와지 대지진 때 함께 땀 흘렸던 동역자분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야마에 오신 이후의 일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위치와는 다른 곳이지만, 처음 집회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하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홍성희(洪性)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 집회소 주변을 청소하곤 하셨습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주변 이웃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출발하게 된 소중한 발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나에게 있어서의 아시아

여기서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69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었던 때⁶, 학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교장실 부근을 바리케이드로 봉쇄했고, 그날 이후 매일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되어 수개월 동안 수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학원 분쟁 속에서 수많은 토론을 거치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여러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형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행동하면서 조금은 어른스러운 척도 해보고, 급격하게 세계관이 넓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⁷ 전쟁 당시에 선교사로 동남아시아에 가 계셨으며, 전후에 곧바로 '속죄의 사역'⁸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학생 기숙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전쟁고아나 일본군 군인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일본으로 유학 및 직업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⁹.

일본의 젊은이들이 혼란 속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아시아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던 영향도 있어서, 청년회 멤버들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과 친분이 있던 해운회사에서¹⁰ 화물선의 빈 객실을 활용해 유스호스텔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이 아시아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기획하고 있었고, 이에 대학생 6명과 고등학생인 저를 포함해 총 7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이 계획된 후 약 1년 동안 설거지, 여관 일손 돕기, 중소기업 부품 조립, 타자기 판매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¹¹.

⁶1969년 10월 13일(월요일)

⁷일본기독교단 도쿄 이케부쿠로 교회, 가토 료이치 목사님. 목사 사모님이신 아사코 사모님은 제 아버지의 친척이기도 하여 부모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⁸참고: 「지금속죄의 때」

⁹아버지 찾거나 수많은 무국적 아이들의 국적 취득 등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에도 힘쓰고 계셨습니다.

¹⁰코야마 해운: 동남아시아 항로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성장했으나, 1975년 8월 21일 파산함

¹¹해운회사에 지불한 금액은 72,000엔이었습니다. 당시 대출 초입이 35,000엔 정도이던 시절이었고,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시급은 100엔에서 180엔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보나 기타 화문 타자기를 쓰는 업무를

2.1 동남아시아 53일간의 화물선 여행

1970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화물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중고 불도저와 공작기계를 싣고 출발해 싱가포르(Singapore)와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이라는 자유무역항에 짐을 내린 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¹²의 발릭파판(Balikpapan)과 사마린다(Samarinda)에 들러 라왕이라는 목재를 싣고 한국 부산에 내리는 5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¹³.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그리고 여행 중에도 성경과 영어, 아시아에 대한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구 식민지로부터 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시아에 진출하여 노동력과 자원을 일본의 식민지처럼 사용하고, 전쟁을 위해 약탈과 학살을 포함해 일본군이 무력으로 현지인들을 지배했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전쟁 책임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느꼈고, 아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솔직히 두려움과 불안이 앞섰습니다¹⁴.

방문지에서는 교회를 찾아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고,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¹⁵이나,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젊은 여성들과도 마주했습니다¹⁶.

또한 한국은 처음에는 기항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도중에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목재를 내릴 곳이 부산으로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어 밤 8시 이후에는 통행금지였고, 콜레라도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여러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일본인을 싫어하고 증오심을 품고 있거나, 일본의 경제적 발전을 시기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¹⁸.

제 아르바이트로 맡겨 주기도 하고, 바자를 열어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국가공무원(노동성)이셨는데, 경미한 신체장애가 있어 군대에는 징집되지 않고 군속(군인 외에 군에 소속되어 문관, 고원, 용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노동 조사를 하러 가셨으며, 목사님과도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의 경험 때문에 자신은 동남아시아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¹²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칼리만탄섬이라 부릅니다.

¹³요코하마 혼모쿠 부두를 출발해 다음은 고베 산노미야항에 정박했고(여기서 오사카 만국박람회 Expo 70에 다녀왔습니다), 그다음 히로시마 우지나항에 정박했을 때(평화기념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짧게 머문 뒤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멤버들과 관계가 있던 기독교 단체인 국제 네비게이터(Navigators) 지부가 있었고, 페낭에는 동남아시아 학생 기숙사에 와 있던 유학생이 귀국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다. 하지만 발릭파판(정유공장이 있었습니다)이나 사마린다(현재는 칼리만탄주의 주도이지만 당시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작은 항구도시였습니다)에는 전혀 지인이 없었기에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목재를 내릴 목적지가 부산으로 결정된 것은 사마린다가 출발할 무렵이었습니다.

¹⁴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인들보다는 지식이 있었지만,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전쟁 범죄 등은 여전히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다'라는 식의 모호한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¹⁵사마린다에서 작업 조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에 탄 한 소년이 제 샌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는 다른 신발도 있지 않냐, 나는 맨발이다'라고 하더군요. 꽤 고민하다가 그 샌들을 주려고 하니, 밑창이 조금 벌어진 것을 보고는 '이건 팔 수가 없으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물론 대부분 몸짓 발짓이었습니다.

¹⁶부두에 정박하는 것은 정박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물을 싣고 내릴 때뿐이었고, 기본적으로는 만(灣) 내에 닻을 내렸습니다. 상륙할 때는 바지선(강이나 항만에서 대형선과 육지 사이를 왕복하며 화물을 운르는 평평한 바닥의 소형 배. barge, lighter)을 이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바지선을 타고 여러 물건을 팔러 오거나, 콜걸 혹은 콜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와서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곤 했습니다. 꽤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 하던 저와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은 '리더 방으로 가라'며 쫓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나중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¹⁷언어 능력이 부족해 직접적인 소통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병설되어 있던 동남아시아 학생 기숙사의 학생들도 있었으므로, 더 노력했다면 훨씬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숙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지금은 속죄의 때」를 다시 읽어보니 상당수의 유학생 이름을 알고는 있었지만, 깊은 교류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¹⁸동남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기류가 있었지만, 특히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본을

솔직히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지만, 동남아시아의 아이들이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러 돌아다니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3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며, 나 혼자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또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저와 하 목사님, 저희 가족과 하 목사님, 흥 사모님, 그리고 자녀분들, 나아가 여러분과 일본인, 한국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증거합니다.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조미교회가 되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